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춘계학술회의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2025. 5. 18 일요일 13:00-17:00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공동주관 한국대중고고학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
후원 (재)한양문화유산연구원
(사)문화살림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2025
The Korean Public Archaeology Society Conference

■ 한국대중고고학회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 전곡선사박물관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2025. 5. 18 (일) 13:00~17:00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주최 및 주관 : 한국대중고고학회
공동주관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 전곡선사박물관
학회후원 : (재)한양문화재연구원 · (사)문화살림

-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 주최 _ 한국박물관협회 ICOM한국위원회
- 후원 _ 문화체육관광부, 가현문화재단, 시공테크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한국대중고고학회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 전곡선사박물관] 공동세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일시 | 2025년 5월 18일 (일) 13:00~17:00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PROGRAM	
시 간	내 용
13:00-13:25	【등록 · 안내】
13:25-13:30	【개회】 사회 이화종 한양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13:30-14:00	【기조강연】 고고유산 문해력과 치유의 고고학 배기동 한국대중고고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4:00-14:25	【제1발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터, 커뮤니티 주성빈 (주)PAL문화유산센터 디렉터
14:25-14:50	【제2발표】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대중 교육의 연계 -한성백제박물관의 실천사례 최진성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사
14:50-15:00	휴 식
14:00-15:25	【제3발표】 어린이와 문화유산 교육 김진희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실장
15:25-15:50	【제4발표】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와 대중고고학의 역할 김진환 한양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15:50-16:10	휴 식 및 정리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배기동 ▮ 한국대중고고학회 회장 강병학 ▮ 한양문화유산연구원 원장 김상태 ▮ 국립나주박물관 관장 신희권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성주 ▮ 경북대학교 교수 이영덕 ▮ 문화유산 마을 원장 이한용 ▮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이헌종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임동민 ▮ 계명대학교 교수 한 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총회 · 폐회】

당일 사정에 의해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CONTENTS

[개회사·기조강연] 배기동 한국대중고고학회 회장	04
고고유산 문해력과 치유의 고고학	
[제1발표] 주성빈 (주)PAL문화유산센터 디렉터	07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터, 커뮤니티	
[제2발표] 최진성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사	13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대중 교육의 연계 -한성백제박물관의 실천사례	
[제3발표] 김진희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실장	18
어린이와 문화유산 교육	
[제4발표] 김진환 한양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22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와 대중고고학의 역할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 개회사·기조강연

“ 고고유산 문해력과 치유의 고고학

Archaeological Heritage Literacy and Healing Archaeology ”

배 기 동 Ph.D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대중고고학회 회장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개회사 ||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연차대회에 붙여 ||

친애하는 고고학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산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한국대중고고학회 2025년도 연차세미나 개최를 자축합니다.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는 오늘날 더욱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활용은 각 공동체의 전략적인 자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그리고 문화향유의 대상으로써 사회적인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은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발굴 작업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고고학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콘텐츠의 활용과 사회적인 재생산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고고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제한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대중고고학회는 보다 차원이 높은 고고유산의 사회적인 활용과 학문적인 구축을 위해서 창립 이후 학문적 구심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창간되는 한국대중고고학회 저널은 고고학의 새로운 장르의 토론장으로서 그리고 고고학 콘텐츠의 대중적 활용을 위한 방법론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앞으로 한국고고학의 심대한 담론의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발표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고유산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많은 대중고고학적인 실행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유산에 대한 실험들 그리고 체험적인 교육성과의 누적은 엄청난 규모로 생각됩니다. 고고유산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보다 차원 높은 종합적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대중고고학적인 연구와 실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고고학의 날' 제정이 이루어지면 고고유산과 그 대중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번에 출범하는 저널은 우리나라의 대중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월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배기동 한국대중고고학회 회장

기조강연 Ⅱ 고고유산 문해력과 치유의 고고학 Ⅱ

고고학은 보이는 유물과 보이지 않는 고대 사람의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는 실체요, 다른 하나는 상상이다. 이러한 학문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는 요소일 것이다. 현대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정반대되지만 한 덩어리가 되는 고고학적 상황이다. 오늘날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나 개인의 행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국 사회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극도의 효율화와 기능화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사회를 유지하는 일이다.

전통적인 학문으로서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이 담고 있는 과거의 문화를 논리적으로 복원하는 복합과학이다. 그러나, 드러난 고고유산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은 현대 고고학의 새로운 장르이자 확장된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고학적인 유물과 유산을 하나의 사회적 환경이자 자원으로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대중고고학적인 작업이다.

유물과 유적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지만 대중에게는 주변 환경의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오브제, 즉 관찰대상으로서 유물과 유적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자유롭게 일어난다. 인간 각자의 선함에 의해서 구성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상상이나 스토리들은 과학적인 결과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지적 유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감성적 힘을 전달하는 고고유산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고고유산 콜렉션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의 개인들이 자신의 선함으로서 해석하고 유산 경험을 향유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고고학은 결국 이러한 콘텐츠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유의 바탕을 확장시켜 준다. 새로운 개인적인 경험과 고유한 상상을 만들어가는 인문학적인 작업인 바, 이것은 과학으로서의 고고학과 대비되는 고고유산의 사회적인 가치인 것이다.

고대의 유물과 유적에서 출발하는 자유로운 상상은 대중에게 상상의 공간과 생각, 경험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기술이 유발하는 건조한 사회변동 속에서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치유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산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대중적인 문해력은 결국 과학으로서 고고학이 추구하여야 할 명제를 제시할 것이고, 이러한 대중의 문해력과 고고학의 연구 사이에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고고학적인 연구와 실행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감성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 제1발표

“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터, 커뮤니티

Communication, Communicator and Community ”

주 성 빈

(주)PAL문화유산센터 디렉터

1. 머리말 - 커뮤니케이션

연락, 의사소통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단어이다. 업무환경, 학문 등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정보의 전달과 습득을 의미하며, 본고 내에서는 학문의 업무 종사자, 연구자 집단에 의한 여집합에게 정보전달로 정의한다.

고고학과 유산 분야 역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다. 공간적으로는 갤러리, 고미술품 전시장, 근대에 들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존재가 그 예이다. 또한, 매장 문화유산의 발굴조사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와 인터뷰, 고고유산 교육과 대중 공개현장, 다큐멘터리, 고고학 교양서적에서부터 역사소설까지 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2. 배경과 문제의식

본고는 고고학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고학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와 양적 수요는 현재 고고학 연구자 집단 및 업무 종사자의 수를 압도한다. 따라서, 유물의 제작과정 및 소재에 대한 물 이해, 탐구와 상상력의 한계로 아래와 같은 잘못된 상식이 재생산, 전파되는 악영향을 반복하기도 한다.



유물 소재에 대한 물이해로, 학습만화임에도 갓 생산된 청동기의 색깔을 부식된 색깔로 표현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출처 : 어린이조선일보)

둘째, 일반적으로 고고학 커뮤니케이션의 소재와 유입경로가 되는 매장유산은 학술적 가치와 흥미로운 유물의 출토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복토 후 개발행위의 재개 등으로 직관적 고고자료의 잔존이 어려운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 국가 유산 공동체 등이 콘텐츠/기념/활용하는 것에 난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고고학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 고고학적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유형 유산과 박물관 등의 고고학적 인프라가 가깝지 않은 지역은 다양한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온라인 내 질 좋은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¹⁾

3. 유사사례 - 과학 커뮤니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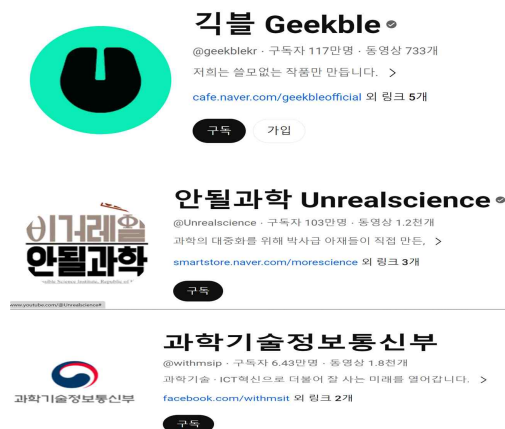
국내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줄여서 ‘과커’라고도 칭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기획자와 전달자를 통칭한다. (김규태, 김성희, 2019)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는 이들의 활동이 포함되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에 대해 ‘과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김선자, 2022) 혹은 ‘과학을 통한 더 나은 삶’을 주장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의 영향을 받아,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범주와 활동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해당 분야와 고고학 분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민간분야 과학 커뮤니케이션 성과의 두각

고고학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 교육하는 공간 거점인 박물관 및 유적전시관에 비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거점인 과학관은 상대적 소수 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학 커뮤니케이션 사례 및 콘텐츠는 고고학 대비 압도적 수량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민간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사례가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직업/진로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각종 과학 유튜브 채널, 공공기관 보다 민간 영역 커뮤니케이터들의 두드러진 성과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20)에서,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의 향유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기본적 조건임으로 이러한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육성과 활동 장려, 잠재적 역량 확보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발적, 개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과학커뮤니케이터 활동은 정책화와 공적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과학관’의 과학커뮤니케이터, 과학 문화 활동가 육성 및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터 육성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연구자 및 업무 종사자(소위 ‘현직자’)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함양하는 과정과 타 분야 전문가(소설 작가 등) 및 예비 집단을 과학 이해력과 전달력 동시 증진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3.6.7.(수) ~ 6.28.(월) 18시 까지

교육과정 기초 - 심화 - 실천과정

직종 총 8개 직종

과학콘텐츠디자이너, 과학강연가, 과학공연가, 과학논픽션작가, 과학스토리텔러, 과학일러스트레이터, 과학만화가, 과학크리에이터

1차 모집 설명회 2023.6.7.(수) 오후 3시 온라인
ZOOM (ID 880 243 6012)

과학문화 전문인력이란?
강연, 공연, 글, 그림, 영상 등의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대해 쉽게 전달하여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사람을 '과학문화 전문인력'이라고 합니다.

과학창의재단의 과학커뮤니케이터 육성 과정

SF작가 김창규와

★★★
2기
과학 커뮤니케이션
스쿨

장르단편소설 쓰기 (2기)

SF, 판타지 장르의 본질적인 장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창작자의 시각으로 짚어보고, 장르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단편 소설을 함께 만들어봅니다.

2025.02.15 시작 / 8회
온·오프라인 병행

소설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 SF소설 집필과정 (과학책방 '갈다'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이 시기 앞선 세대의 개인 중심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활동은 대중적인 주목을 받고, 전분야적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주목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공교육 진로분야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으며, 많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창출한다는 것에서 잠재적 역량을 지속해서 배양한다.

커뮤니케이터 중심의 커뮤니티

앞선 과학 커뮤니케이터 팬층을 중심으로한 과학을 문화와 취향으로서 향유하는 집단의 등장하였다. 집중적으로 ‘과학채널만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개인 커뮤니케이터들이 맞추기 어려운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커뮤니케이터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만족한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요와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효과를 파생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느슨한 연대와 더불어 집단으로 정의하지 않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 스스로 정의하지 않지만, 주말이면 과학카페에 자녀와 함께 강의를 듣고, 출근길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좋아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추천한 SF영화가 개봉하면 예매한다. 즉, 취향 기반 과학 커뮤니티의 탄생과 확대를 통한 보편화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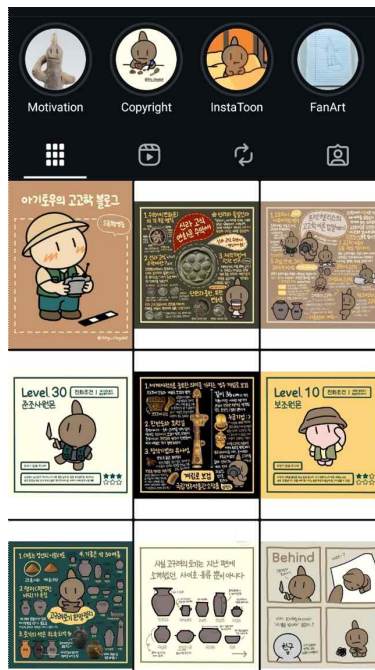
4. 고고학 커뮤니케이터? 커뮤니티?

고고학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시민참여는 일찍이 이뤄져 왔으나, 업무 종사자와 연구자 집단과 구분되는 시민참여 집단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그 역할에 대해 한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이름으로 육성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주로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한정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확산과 커뮤니티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형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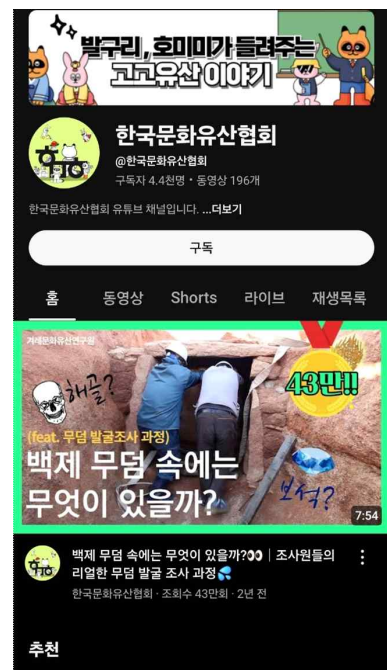
연구자 및 업무종사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형태의 저술과 대중강연 활동과 방송 출연부터, 최근 들어 웹툰 및 캐릭터, 각종 지식 유튜브 및 전시 혹은 음악회 등과 결합한 다양한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제작 등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개별 커뮤니케이터들 역시 각각의 팬을 비롯하여 느슨한 커뮤니티 역시 가지고 있으며, 점차 커뮤니케이터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채널에 출연한 강인욱 교수
(유튜브 'BODA' 갈무리)



고고학 인스타그램 '아기토우'
(인스타그램 '아기토우' 갈무리)



한국문화유산협회 유튜브 채널
(유튜브한국문화유산협회 갈무리)



죄송합니다. 피라미드 미스터리 풀버전 풀겠습니다. 궤도x곽민수 | 10분토론 / 14F
 조회수 148만회 · 1년 전
 14F 일사예프
 이제야 진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10분 토론이 아니라, 10분 티저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

‘애굽민수’라는 애칭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활약중인 곽민수 소장
 (유튜브 ‘14일사예프’ 갈무리)

근래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과학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주목한 역사/고고학 커뮤니케이션 시장이다. 각종 과학채널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장을 형성한 방송사, 콘텐츠 기획자들은 건축학, 고고학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접근하고 있다.

5. 제언 - 커뮤니케이터의 육성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

앞선 사례들을 토대로, 본고의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고학 커뮤니케이터로의 교육과 부업 장려

소위 ‘현직자’로 불리우는 기존 훈련받은 고고학 연구자, 업무 종사자를 커뮤니케이터로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개별 소속 기관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터 활동에 대해 업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 시선과 활동 장려가 필요하다.

엄격함을 낮추고, 긍정적 협업

고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타 분야 전문가(작가, 방송인, 관심 집단)의 고고학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커뮤니케이터 교육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엄격함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협업은, 국내의 극히 소수에 불과한 고고학 연구자&업무 종사자 집단 내에서도 소수인 커뮤니케이터들의 양적으로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생산을 보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요자들의 양적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의 취향으로서 고고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친다.

[참고문헌]

김규태, 김성희. (2019, 05, 18).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서울.

김선자. (2022, 1). 팬데믹과 과학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과 사회.(1), 146-168.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 제2발표

**“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대중 교육의 연계
- 한성백제박물관의 실천사례**

Baekje Royal Capital Excavation and Public Education Programs”

최 성 진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사



1. 머리말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의 2천 년 역사를 복원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립박물관이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의 유적·유물의 효율적 조사·연구·관리 및 활용을 통해 서울 및 한강 유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및 관광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성백제박물관은 여느 박물관들과 비슷한 전시·유물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는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백제 한성기 유적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백제학연구소라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점이 다른 박물관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백제학연구소가 설치된 2013년 이후로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풍납동 토성과 삼성동 토성, 방이동 고분군 등 여러 백제왕도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한성기 백제 도성의 구조와 경관 등 여러 학술적 조사성과를 거두어왔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자료를 활용해 특별전시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박물관 고유 역할로서의 전시·교육 활동 이외에 조금 더 대중적이고 친화적인 콘텐츠 개발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해 단순 조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성을 살리며 대중 친화적인 현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이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와 자료들을 기존의 일반적인 전시와 교육 이외에 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사회적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밑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Ⅱ.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현황

『삼국사기』에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으로 나온다. 국력이 성장하면서 첫 도읍인 위례성은 2개의 왕성을 갖춘 왕도 한성으로 발전하였다. 건국부터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 475년까지 한성은 백제 역사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이는 678년에 이르는 백제사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시간이다.

한성의 위치는 지금의 서울 송파 일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풍납동 토성과 몽촌토성, 왕릉원에 해당하는 석촌동 고분군 등 중요 유적들이 남아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3년부터 백제 왕도의 구조와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백제 왕성인 몽촌토성과 왕릉원에 해당하는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몽촌토성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백제 토성으로 풍납동 토성과 짝을 이룬 백제 한성기의 왕성이다.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에 나오는 ‘남성(南城)’으로 보고 있다. 성벽은 남한산성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끝자락의 야트막한 구릉에 흙을 다져 쌓았으며, 전체 둘레는 약 2.4km이다. 성문은 남문터, 북문터, 동문터가 있으며, 성 밖에서는 해자(垓子)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의 실체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점차 드러나고 있다. 북문터 안쪽에서 확인된 ‘회회’자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분기된 백제 도로와 ‘궁(宮)’자가 찍힌 백제토기는 몽촌토성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된 백제 ‘궁성’임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육조시대의 시유도기(施釉陶器)와 청자, 왜의 스에키[須惠器] 등은 백제와 주변국과의 대외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된 475년 이후부터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한 551년 이전까지 몽촌토성은 고구려의 남진 거점 기지로 활용되었다. 도로와 목곽 집수지, 건물지와 유물 등 고구려 문화유산이 이를 말해 준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려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고대 목제 쟁기가 확인된 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로 고대 농업기술사 연구의 새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한성의 왕실과 귀족들이 잠들어 있는 유적이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이곳은 본래 동쪽 구릉의 방이동 고분군까지 이어져 있었다. 석촌동에는 남한산, 대모산 일대의 돌과 한강 주변의 흙으로 쌓은 봉토분과 적석총 수백 기가 겹겹이 들어서 있었다. 그중 3호분은 한 변 50m의 피라미드형 고분으로서 백제 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릉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거대한 고분을 만들기 위해 터를 닦고 견고한 기초를 다진 후 많은 양의 돌과 흙을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되었다.

2015년부터 새로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거대한 적석총이 새로 드러났다. 크고 작은 적석묘를 서로 잇대어 쌓아 점점 커진 ‘연접식’ 적석총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에서 확

인된 규모만 길이 125m, 폭 40m이며 아직 끝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크기는 훨씬 컸을 알 수 있다. 고분에서는 처음으로 많은 양의 화장(火葬)된 뼈와 함께 장신구와 토기,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목관이나 목곽을 쓴 토광묘도 발견되었는데, 적석총보다 먼저 쓰이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백제 왕실의 장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금귀걸이, 은반지, 유리구슬 목걸이, 중국 청자와 흑유계수호 등 고급 장신구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죽은 이의 몸을 치장하거나 장례 때 쓴 제사 물품, 무덤에 넣어 준 부장품들인데, 왕실의 지위에 걸맞은 위상을 보여준다.

Ⅲ. 발굴조사 콘텐츠의 대중 교육 사례



1. 찾아가는 박물관 : 발굴 현장 교육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중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성이다. 교육 참가자가 방문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여러 문화유산들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을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교육의 몰입도는 증가한다.

발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성기 백제와 해당 유적이 갖는 의미, 조사 성과와 같은 교육은 다양한 대중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조사단에서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다. 일상 속에서 조사현장을 무심코 지나치던 주민들이 점차 조사현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사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알아가며 결국에는 개개인의 역사 인식을 바꾸고 문화 정체성을 더

육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에 대한 현장교육 또한 중요하다.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 또한 교실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반 시민과 더욱 접점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전시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 역시 그들이 전달하는 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진행을 유도하는 등의 장점이 크다.

2. 디지털 박물관 : 온라인 교육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의 효과는 지대하다. 하지만 교육 대상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온라인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조사성과를 영상으로 제작한 조사성과 설명회,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SNS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생산해 내는 디지털 모델링·고환경 복원·4D 영상 제공 등도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Ⅳ. 나가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박물관 역할은 확보한 유물을 정리·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며 이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통상의 역할과 모습에서 벗어나 더 대중에게 다가가고 친화적이며 다양한 첨단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이 지금의 박물관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현장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대중이 갖고 있는 고고학·역사적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 정체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러한 발굴 연계 교육은 아직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선하고 발전하여 여러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새로운 대중 교육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멈추지 말고 꾸준히 진행되어 나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 제3발표

“ 어린이와 문화유산 교육 : 박물관 전시 사례 중심

Cultural Heritage Education for Children ”

김 진 희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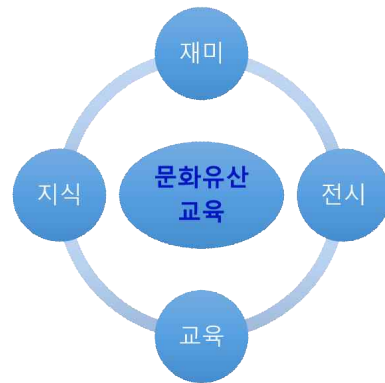
1. 어린이 문화유산 교육의 개념

- 문화유산 :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겨레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유형 문화유산, 민속 문화유산, 기념물 등
(표준국어대사전)

- 문화유산 교육 : 조상이 남긴 건축물, 유물, 전통, 이야기, 생활방식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정체성과 역사적 이해를 키우는 활동.
어린이는 문화유산 경험과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 감수성과 다양성,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음

-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문화유산 교육 과정

✓누리교육과정(2013)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박물관 콘텐츠 학습서클

내용 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사회에 관심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초등 저학년 개정 교육 과정(2022) : 통합교과 -슬기로운 생활 -탐구하며 살아가는 힘

구분	1~2학년 총 수업시수 ^[A]
국어	482
수학	256
통합교과	바른 생활 144
	슬기로운 생활 224
	즐거운 생활 400
창의적 체험활동	238

〈표 6〉 초등 통합교과 역량의 변화

교과	2015 개정	2022 개정	성격 및 목표의 역량 추진
바른 생활	자기관리 역량	통합교과 공통 역량	지금-여가-우리 삶을
	공동체 역량		성찰하며 살아가는 힘
	의사소통 역량		
슬기로운 생활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금-여가-우리 삶을 살아가는 역량	지금-여가-우리 삶을 탐구하며 살아가는 힘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즐거운 생활	창의적 사고 역량	지금-여가-우리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힘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초상... 네이버블로그

II. 어린이 문화유산 전시교육 사례

1.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전시사례

✓ 미국 인디아나폴리스어린이박물관 : 중국 병마용갱, 수중고고학, 이집트 피라미드



✓ 오스트리아 쾰른궁어린이박물관 : 18세기 여름 궁전의 로열패밀리 체험전시



2.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 그리스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 :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미술 워크숍 전개



3. 우리 문화유산 아이디어 스케치

✓ 보물지도 탐험대(초등 저/고)

- 내용: 옛날 지도를 들고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공간을 탐험.
- 방식: 미션 수행 ('조선시대 왕의 의복을 찾아라!', '가장 오래된 도자기를 찾아 사진 찍기')
- 목표: 유물을 스스로 찾고 관찰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호기심 키우기.

✓ 내 손으로 만드는 작은 유산 (취학 후)

- 내용: 전통 공예(한지, 매듭, 토기 등) 체험.
- 방식: 만들기-스토리텔링 연계 ('내가 만든 옛날 그릇은 어떤 마을에서 쓰였을까?')
- 목표: 감각적 체험 + 상상력 자극.

✓ 역사 속 인물 변신 쇼(초등 고) / 역할놀이(초등 저)

- 내용: 역사 속 인물(세종대왕, 신사임당 등)을 주제로 역할극
- 방식: 의상 입기 + 간단한 대사 준비 후 미니 공연하기.
- 목표: 문화유산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키우기

<https://chatgpt.com/c/680f12ce-2518-800c-ab28-46601779c67b>

Ⅲ. 결 어 :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의 핵심

1. 어린이의 뇌 성장,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참고한다.
2. 문화적 노출을 어린이의 현재 삶과 연결시켜 준다.
3.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하여 어린이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안다.
4. 어린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체험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한다.
5.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개인적 탐구로 연결시켜 준다.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회의

공동체와 대중고고학

Community and Public Archaeology

■ 제4발표

“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와 대중고고학의 역할

Roles of Public Archaeology in Changing Community Identity ”

김진환

한양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들어가며 : 공동체 정체성과 대중고고학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정체성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공동체 정체성은 역사적 기억, 문화적 실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적 산물로, 개인과 집단의 자아 인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급속한 글로벌화, 디지털 혁명,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동은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들의 정체성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방식을 촉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초국가적 연결성, 그리고 가상 커뮤니티의 등장은 공동체 정체성의 복잡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중고고학은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학문적 실천이다. 전통 고고학의 한계를 넘어 대중고고학은 고고학적 지식이 대중과의 연결하기 위한 소통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교육, 미디어,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의 전달 방식을 시도하면서 대중에게 고고학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문화유산 보존 가치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1.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 양상

전통적 공동체 정체성은 지리적, 혈연적, 문화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린 특성을 가졌으며, 언어 공유, 관습,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 정체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를 3단계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전통사회 공동체 정체성의 기반이다. 농경사회에서 생존의 필수 구조로 혈연과 지연 등으로 물리적 경계를 이루었고, 국가적 단위에서 통치 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세계관을 통해 응집력을 확장하였다. 두 번째는 근대화로 인한 정체성 해체이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 이동은 전통적 공동체의 기반이 붕괴되고 국가정책화를 통해 국가 주도의 정체성이 재구성되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재구성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화와 개인주의는 기존의 공동체 주도에서 개인 주도로 재구성되는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공동체 존재를 위한 개인의 역할에서 개인의 존재를 위한 공동체 역할로 정체성의 재구성이 된 것이다.

기술 발전, 글로벌화, 그리고 개인주의의 증가는 공동체 정체성 변화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창출하며, 개인들이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가상 공동체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지리적 제약을 넘어 공동의 관심사, 가치,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개인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선택적인 소속감을 제공한다. 환경운동, 게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는 전통적인 정체성 형성 메커니즘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등장은 정체성의 복잡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문화적 혼종성, 초국가적 이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공존은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 개인의 자아 인식,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적 실천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동체 정체성은 이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대중고고학의 현재와 과제

대중고고학은 전통적인 고고학 연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학문적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고고학이 주로 학술적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연구였다면, 대중고고학은 고고학적 지식을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한다.

현재 대중고고학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 참여형 발굴 프로그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교육 및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이 핵심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고학적 지식의 대중화는 이 분야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전통적 고고학과 대중고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식 생산과 해석의 방식에 있다. 전통 고고학이 학술적 권위와 객관성을 강조했다면, 대중고고학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해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이는 고고학적 지식을 더욱 포용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중고고학은 여러 중요한 과제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학술적 엄밀성과 대중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제한된 재정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조율하는 문제 등이 주요 도전 과제이다. 또한 상업화된 문화유산 해석과 학문적 윤리 사이의 긴장 관계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 공동체 정체성 강화를 위한 대중고고학의 역할

대중고고학은 공동체 정체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대중들에게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대중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디지털 고고학 및 정보 공유, 지역사회 및 공동체 협력, 문화관광 및 해설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지역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전략으로, 단순한 역사 학습을 넘어 직접적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은 고고학 자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가상 전시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인터랙티브 온라인 플랫폼 등은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넘어 광범위한 대중에게 고고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특히 젊은 세대와 지리적으로 원격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대중고고학의 포용적 접근법은 한양문화유산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양문화유산연구원은 대중고고학을 기존의 고고학의 범주를 벗어나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사업 콘텐츠는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매장유산 홍보 활성화 사업, 기타 콘텐츠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인 소통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복합문화 경험을 통한 정보 전달이다. 지역문화유산 관련한 역사문화를 다양한 컨셉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전통악기 공연, 전통의류 체험 등의 전통문화체험과 천문관측 하기, 활쏘기 등 현대적 활동으로 재해석한 문화산업 체험 융합으로 정보 전달의 접근성을 높였다.

두 번째, 직접적 문화체험을 통한 정보 전달이다. 한양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사업은 모두 직접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발굴조사 체험, 발굴현장 견학 등 참가하는 대중들이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습득하게 하였다. 특히, 초등·중등·성인·가족 등 대상별 맞춤 콘텐츠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대중 접근성을 높였다.

세 번째, ICT기술을 활용한 소통이다. 온라인 및 ICT기술을 활용한 지역문화유산 정보 전달로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흥미로운 접근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양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AR프로그램과 QR코드를 활용한 한국의 역사문화유산 정보 제공 등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네 번째, 문화유산 사업의 지역화이다. 모든 지역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에는 지역주민들과 공동 운영으로 지역 콘텐츠화하였다. 물론, 사전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단계별 강사

양성 및 기획가 양성 과정 등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한양문화유산연구원은 변화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석하여 대중고고학을 접목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대중고고학은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영역과 연계하고 있다. 박물관 영역은 고고학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유산으로 기획하여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미디어와의 전략적 협력은 고고학 지식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고고학적 발견과 해석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교육분야는 연령대별·유형별 교육 다변화로 대중에게 고고학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정책분야에서 2024년 ‘문화재’ 명칭의 ‘문화유산’ 변경은 국가적 정책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 물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대중의 입장에서 매장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이 시민 참여형의 현대적 적용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제적으로 대중고고학의 영향은 국가간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ODA사업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처럼 확장된 대중고고학의 활동영역은 대중 접근성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광 및 고고학 관련 산업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촉진 역할에 기여한다.

4. 대중고고학의 미래 방향성

대중고고학의 미래는 학제간 협력과 혁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인류학, 사회학, 디지털 미디어 연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통합적 협력은 고고학적 지식의 해석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학제간 접근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더욱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된 고고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미래 대중고고학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유산 보존, 지역 경제 발전, 환경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은 고고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개발은 대중고고학의 중요한 미래 전략이 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부상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적 고고학 협력, 초국가적 문화유산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 간의 지식 교환은 대중고고학의 글로벌 차원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은 대중고고학의 혁신적 접근의 핵심이 될 것이다. 증강현실, 인공지능, 게이미피케이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층의 문화유산 이해와 참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능동적이고 감각적인 문화유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윤리적 고려사항과 문화적 감수성 강화는 미래 대중고고학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관점을 포용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대중고고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 : 공동체 정체성과 대중고고학의 상호작용

본 원고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중고고학의 혁신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공동체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기술 발전, 글로벌화, 디지털 연결성은 개인들이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대중고고학은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학문적 실천으로 부상했다. 전통 고고학의 한계를 넘어, 대중고고학은 고고학적 지식을 대중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한다.

미래 대중고고학의 핵심 과제는 더욱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학제간 협력, 디지털 기술 활용, 다문화적 관점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는 대중고고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중고고학은 단순한 학문적 실천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공동체 정체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경험을 포용하며,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중고고학의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25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대회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편 집 : 한국대중고고학회 학술위원회
공동발행 : 한국대중고고학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

발 행 일 : 2025년 5월 18일
발 행 처 : 한국대중고고학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019호
전 화 : 031-833-6835
전 송 : 031-833-6836

* 발표자료집은 (사)한국박물관협회 지원으로 제작됨.
